부산불교, '불교문화 계승·자비 실천' 발원

부산불교聯, 병오년 신년하례회
500여 명 동참해 사업 방향 모색
정오 스님 "소통하는 열린 불교"
자비의 쌀 1만kg 지역사회 회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불교연합회는 1월 21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2026년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봉행하고 부산불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병오년을 맞아 '불교문화 계승과 시민 공감, 국제 확산, 자비 실천'을 핵심 기조로 2026년 행보를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월 21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2026년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봉행하고,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서원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신년하례회를 통해 부산불교는 △전통 불교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확산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불교 △국제적 문화 교류 속의 부산불교 위상 강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자비 실천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 상임부회장 혜진 정사와 자관 스님 등 연합회 집행부 스님들과 부산 지역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이 참석했다. 또 부산시 구·군 불교연합회 회장단과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산 스님 등 불교계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아울러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을 비롯한 재가불자들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정오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부산불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 정오 스님은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부산불교의 근간"이라며 "시민과 공감하고 국제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불교, 그리고 자비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불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교문화의 계승과 확산을 통해 부산이 가진 역사·문화적 자산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시민의 삶 속으로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일수록 불교의 자비와 화합의 정신이 더욱 절실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을 이어 갈 때 부산불교의 원력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부회장 혜진 정사는 고불문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이 사회 전반에 스며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원했다.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은 "부산과 시민 모두가 평안하고, 불교의 가르침이 일상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병오년 한 해는 나눔과 실천으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부산불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불교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부산광역시장 표창 시상도 함께 열렸다. 수상자는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의 강태산 전 사무국장과 김태만 부산불교방송사진 가회장으로, 두 수상자는 불교 포교와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부산불교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신년하례의 의미를 실천으로 잇는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이 진행돼 부산불교연합회가 쌀 1만kg을 지역사회에 회향했다.

성파 스님 "이미 갖추고 있다, 모두가 부처!"

통도사 화엄산림 회향 법회
불자 체육인 10명 장학금도


통도사의 화엄산림 회향 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화엄경〉을 봤나?" "들었나?" 대중의 응답이 이어진 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화엄경〉을 먹었나."

잠시 침묵이 흘렀고, 대중은 "못 먹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성파 스님은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먹는 것"이라며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오늘 마음을 먹었으니 이 자리에 모인 대중 모두가 부처임을 증명한다"고 법문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월 18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회향 법회에서 성파 스님은 구중(九重) 구품(九品) 구중궁궐의 비유를 들어 "이 도량이 왜 화엄 도량이며, 왜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부처인지를 몸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했다.

성파 스님은 통도사 가람 구조를 언급하며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이 각각 세 법당씩 있어 삼삼이 구가 된다"며 "이는 구품연대를 갖춘 도량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품연대는 부처님이 머무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 구품연대가 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도 그대로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대중을 향해 눈 코 귀 입을 짚어 보이며 "사람 몸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구중이고, 구중궁궐이며, 구품연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모두 이 구중을 타고난다"며 "이미 몸이 부처님이 머무는 도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대로 부처의 자리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부처가 떠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설했다. 또 "〈화엄경〉을 보고 듣는 데서 멈추면 아직 덜 한 것이고, 마음으로 먹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도사는 불자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전달식을 마련해 총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장학금은 학업과 체육 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불자 체육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수 합포중 학생이 대표로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리말 금강경 독송으로 재가안거 수행

부산 15개 사찰 300여 명 참석



도심 법당에 모인 사부대중의 목소리가 '우리말 금강경'으로 이어졌다. 승가 수행의 영역에 머물던 동안거 수행을 재가 공동체의 수행으로 확장하려는 조계종부산연합회의 노력이 반야의 지혜를 새기는 〈금강경〉 독송 정진으로 구체화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는 1월 16일 대광명사 도심법당에서 '을사년 재가 동안거 우리말 금강경 독송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재가불자들이 수행의 주체로 서는 재가안거 전통을 생활 속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대광명사, 미타선원 등 부산 지역 15개 사찰의 재가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목종 스님은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해탈과 열반으로 이끄는 주된 가르침"이라며 "반야란 세상과 나를 실체로 고정해 바라보는 인식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혜"라고 설명했다.

〈금강경〉 독송 후에는 명경문화재단 이사장인 주석 스님이 '명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도 펼쳤다.

주석 스님은 "명상은 걷고 숨 쉬고 일상을 살아가는 전 과정"이라며 "어느 순간에도 수행이 아닌 때는 없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동련 신임 이사장에 미수 스님

1월 15일 이사회서 선출



사단법인 동련이 1월 15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미수 스님〈사진〉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미수 스님은 어린이 포교와 불교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으며, 동련의 주요 사업과 운영 전반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신임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동련은 어린이 포교의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다지기 위한 조직 정비와 중장기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동련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어린이 포교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중점 과제로 삼아 체계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예산 심의, 정관 변경 등의 안건도 함께 상정돼 원안대로 승인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생명나눔·부산전문장례식장 업무협약

생명 존중 · 사회복지 증진 노력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 이하 부산생명나눔)가 부산전문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부산생명나눔은 1월 16일 홍법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전문장례식장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의 기증회원과 후원회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시설 이용과 장례 용품 구입 시 할인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난치병 환우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정기 후원을 약정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